

부모의 우울이 초등학교 자녀의 언어발달,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권태연

선문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The Longitudinal effect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on language development, problem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first grade child

Taeyeon Kwon

Counseling Psychology and Social Welfare, Sunm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수준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우울수준이 초등학교 자녀의 언어발달,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4-8차년(2011~2015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종단적인 변화 관계를 추정하는데 적합한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754 가구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였다. 분석결과 아버지 우울수준 초기값이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 우울수준 초기값이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우울은 어머니 자신의 우울 문제 뿐 아니라 아버지 우울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우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아버지의 우울수준 초기값과 어머니 우울수준 초기값은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수용어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또래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령기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학교적응을 위해 아버지 및 어머니 둘 다를 위한 우울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simultaneously.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interplay of paternal and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for predicting elementary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their problem behaviors and their school adjustment. Using the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or the 4th-8th years (2011~2015 year), this study used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 which is helpful for examining longitudinal relationship differences among variables. The sample subjects were 1,754 parents and childr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initial level of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rate of change i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The initial level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rate of change in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Mothers' depressive symptoms showed not only the mothers' own depression problem. but also the self-effect and counterpart effect of depression on the fathers' depression problem. The rate of change in maternal depressive symptom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initial level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ren's receptive language, internalizing/externalizing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Therefore, depressi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both fathers and mothers are neede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and school adaptation of school-age children.

Keywords :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Language development, Problematic behavior, School adjustment, Latent Growth Curve Model

*Corresponding Author : Taeyeon Kwon(Sunmoon Univ.)

email: tykwon@sunmoon.ac.kr

Received September 30, 2019

Accepted January 3, 2020

Revised November 1, 2019

Published January 31, 2020

1. 서론

부모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가족 체계 관점에 따르면 가족은 구조화된 총체적인 체계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 정신 건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별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중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신건강이 상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신건강은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왔다[1-3].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인 우울을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 우울은 일반인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로서 공중보건적 관심이 되어 왔다. 특히 부모의 우울 문제는 비단 부모 개인의 정신적인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4].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우울이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및 사회적 발달 등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고 있다[3-8]. 예를들어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의 자녀들의 경우, 상징적 놀이, 읽기 및 학습의 어려움, 철회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및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들에 비해 심리정서 및 인지적 발달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초기 아동기의 신체, 심리정서, 사회적 발달이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기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 아동의 발달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자녀발달과 적응에 부모의 정신건강이 미치는 중단적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전환기는 이후의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학업적 성과의 토대가 될 수 있기에 이 시기의 아동의 발달과 적응은 매우 중요하다[8].

지금까지 부모의 우울과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우울은 부모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이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9-10]. 주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어머니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어서 실제적으로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산후 우울이 있는 아동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은 서로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3,6] 반영

하여 한 모형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매우 소수이다. 둘째, 부모 우울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생후 5년 이내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특정 발달 영역 즉 심리적 발달에 집중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11-16]. 아동의 발달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아동의 인지, 심리정서, 사회적 발달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대부분 각각의 발달 영역을 따로 살펴 보았으며, 한 모형에서 통합적 발달을 살펴본 연구들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우울간의 중단적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부모의 우울이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언어, 심리사회 발달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부모의 우울

부부 중 한 사람의 우울은 자신의 개인 특성 뿐 아니라 상대방 특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부의 우울수준은 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17]. 부인 우울증과 남편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고양된 우울수준은 다른 배우자의 우울증상 수준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3]. 이는 한 배우자의 우울증은 다른 배우자의 유의미한 우울증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나, 부부 우울증의 중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 부부 간 우울수준의 중단적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부부 중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서 부부간 상호연관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2.2 부모의 우울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신건강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총 5가지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5개의 모델은 크게 2개의 개별모델(separate model) 즉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개별 영향 모델과 3개의 통합모델(joint model) 즉, 부모의 가법모델(additive model), 위계모델(hierarchical), 완충모델(buffering)이 있다. 5개 모델에 관한 내용은 Mervi[2]의 연구를 정

리하였다.

첫째, 어머니 개별모델은 아버지의 정신건강의 문제와는 별개로 어머니의 정신건강의 문제만이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8]. 임신 기간 동안 어머니의 정신건강이 뱃 속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출산 후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아버지 개별 모델은 어머니의 우울 문제와 별개로 아버지의 우울증상이 아동의 우울증상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가법모델은 각각 부모의 증상은 아동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며, 양 부모는 개별적으로 아동 발달에 중요함을 가정한다[2,18-19]. 넷째, 위계적 모델은 어머니의 정신 건강의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에만 아버지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동 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가속화시킨다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완충모델은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쪽의 건강한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서 기능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한쪽 부모가 건강하다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음은 부모의 우울이 자녀의 언어, 심리정서 발달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우울은 자녀의 인지 및 학습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부모의 우울은 자녀의 언어발달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의 문맹이나 학업준비도 및 학업성적과도 강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20-22]. 부모의 우울문제가 자녀의 어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22]에서는 부모의 우울증상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감소시킴으로서 자녀의 표현어휘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부모의 우울은 자녀의 심리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22,24]. 부모의 우울이 아동의 인지 발달, 사회적 발달, 내재화 및 외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2]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만이 아동의 내재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인지발달 특히 수행 기능에 있어서는 부모의 우울 둘 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대규모 부모 자녀 코호트 연구 [4]에서 부모의 산후 우울은 42개월 아동의 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정서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우울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부모의 산전 우울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우울만이 아동의 행동 및 정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우울과 자녀의 학교적응 간의 직접적 영향관계

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스타일을 매개로 하여 우울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연구[21]에 의하면, 부모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는 불일치하고 냉정한 규율로 훈육을 하여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우울증상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관여와 교육적 관여를 감소시켜서 초등학교 자녀의 사회적 기술이나 또래 수용 등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 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의 2011년 4차년도부터 2015년 8차년도까지의 총 5개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부터 아동의 성장 및 발달 과정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단연구로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2,150 신생아 가구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아버지의 우울이 조사된 시기가 4차년도 부터이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이 8차년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차년도부터 8차년도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1년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1,754가구였으며,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그 자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3.2 측정도구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수준은 Kessler가 개발한 우울척도(K6)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불안, 무기력, 안절부절 못함 등의 총 6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지난 30일 동안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전혀 안 느낌'의 1점부터 '항상 느낌'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6문항의 총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우울수준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각각 .98(4차), .97(5차), .96(6차), .98(7차), .97(8차)이었으며, 어머니의 우울 수준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각각 .98(4차), .97(5차), .98(6차), .97(7차), .97(8차)이었다.

자녀의 언어 발달은 아동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

수준을 측정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척도(REVT: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를 활용한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생활연령에 따라 시작문항을 달리하여 평가하며, 본 연구에서는 어휘 발달 수준을 같은 생활연령대의 대상자들에 대한 상대적 어휘 발달수준을 제시하는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였다.

자녀의 문제행동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의 내재화와 외현화를 측정하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8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행동평가척도 중 내재화는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화 문제는 규칙위반, 공격행동의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하위요인들의 총합의 원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내재화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 신체증상 등의 내재화 문제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하며, 외현화 점수가 높을수록 규칙위반이나 공격행동의 외현화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재화 및 외현화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각각 .79, .76이었다.

자녀의 학교적응은 8차년도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학교적응 척도를 활용하였다. 학교 적응 척도는 총 35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학교생활, 학업수행, 또래 및 교사 적응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이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적응, 질서 및 규칙, 정해진 일과에 대한 적응 등을 묻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학업수행적응은 의사표현이나 활동의 의욕성, 수업시간에서의 활동과 모둠별 활동 등을 묻는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래 적응은 친구들과의 놀이에 관한 문항, 갈등 해결의 형태, 또래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등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교사적응은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함,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함, 선생님께 도움을 잘 청함 등을 묻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안 느낌'의 1점부터 '항상 느낌'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교적응 척도의 각각 하위 요인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학교생활이 .88, 학업수행이 .85, 또래적응이 .78, 교사 적응이 .84로 나타났다.

부모의 우울수준과 아동의 인지, 심리정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부모의 연령, 가구 소득, 부모의 교육수준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활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이하(0)와 대졸이상(1)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 궤적 간의 관계와 부모의 우울 궤적이 아동의 언어 발달, 행동문제와 학교 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활용하였다. 결국적으로 인한 편향적 추정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FIML)을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간명도를 고려하는 TLI, CFI, RMSEA 지수를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평가는 TLI와 CFI가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되고, RMSEA 값은 .05이하면 우수한 모형으로,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을 의미한다[25]. 본 연구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 20.0과 AMOS 8.0을 사용하였다.

3.4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버지 우울수준과 어머니 우울수준 간의 상호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버지 우울수준과 어머니 우울수준이 초등학교 자녀의 언어발달, 문제 행동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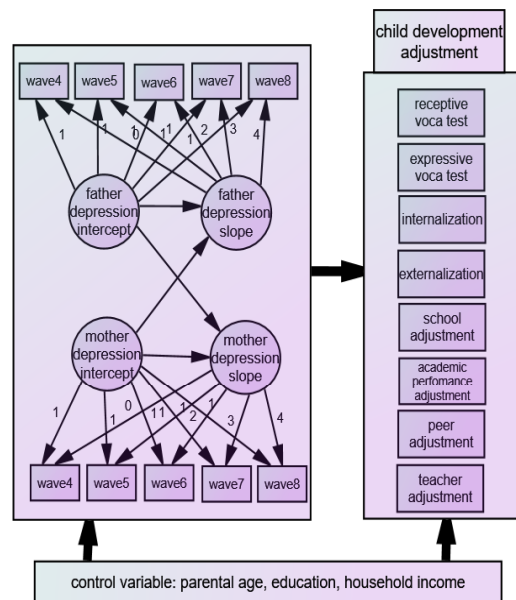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4. 분석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의 기술 통계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in the analyses

variable		frequency	percent
father edu	high school	455	26.9
	college over	1,237	73.1
mother edu	high school	517	30.4
	college over	1,181	69.6
father age	20s	69	4.1
	30s	1,291	77.1
	40s	314	17.2
	50s	8	.6
mother age	20s	182	10.8
	30s	1,389	85.3
	40s	110	3.9
household income	Less than 100 ten thousands won	27	1.5
	101-200 ten thousands won	171	10.0
	201-300 ten thousands won	517	30.3
	301-400 ten thousands won	426	25.0
	401-500 ten thousands won	184	16.6
	501-600 ten thousands won	142	8.3
	601-700 ten thousands won	54	3.2
	701-800 ten thousands won	29	1.7
	over 800 ten thousands won	55	3.2
	variable		mean
father depressive symptoms	wave4	11.26	4.17
	wave5	11.21	4.05
	wave6	11.00	3.95
	wave7	11.24	4.47
	wave8	11.39	4.12
mother depressive symptoms	wave4	11.89	4.50
	wave5	11.77	4.52
	wave6	11.63	4.44
	wave7	11.59	4.52
receptive voca ability	normal (over mean)	793	58.40
	normal(mean)	299	22.00
	slightly retardation (under mean)	159	11.70
	retardation	107	7.90
expressive voca ability	normal (over mean)	762	53.20
	normal(mean)	231	16.10
	slightly retardation	258	18.00

	(under mean)		
	retardation	180	12.6
	internalization	3.73	3.98
	externalization	4.17	4.25
	school adjustment	3.96	0.70
	school adjustment	4.46	1.03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3.83	.85
	peer adjustment	3.96	.80
	teacher adjustment	3.99	.76

4.2 부모의 우울수준 변화궤적

부모의 우울수준의 발달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선형변화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가 무변화 모형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이는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model fit index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trajectories

		χ^2	df	p	RMSEA	CFI	IFI	TLI
F a t h e r	no growth	46.93	13	.000	.039	.979	.979	.976
	linear	25.18	10	.005	.030	.991	.991	.986
M o t h e r	no growth	100.0	13	.000	.063	.967	.967	.962
	linear	53.42	10	.000	.050	.984	.984	.976

부모의 우울수준 발달궤적 추정치를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아버지 우울수준 초기값의 평균은 11.304(p<.001)로 변화율 평균은 .031(ns)로 우울수준 초기값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우울수준 초기값 평균은 11.304점이고, 매년 .031씩 증가하나 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아버지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값에 있어서 아버지 우울수준의 개인 간 수준이 다양하고 우울수준의 변화궤적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우울수준 초기값이 낮을수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빨리 증가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우울수준 초기값 평균은 11.934(p<.001)로

변화율 평균은 $-.162(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어머니 우울수준 초기값 평균은 11.934점이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162점씩 감소함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우울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미한 부적관계($b=-.391, p<.001$)가 나타났다. 이는 초기에 우울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수준이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하거나 천천히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수준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므로 초기 우울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울수준이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초기 우울수준이 낮은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울수준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3. Unconditional growth curves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father			mother		
		Est.	S.E	C.R	Est.	S.E	C.R
mean	intercept	11.304	.100	112.807***	11.934	.101	118.315***
	slope	.031	.029	1.030ns	-.162	.026	-6.059***
covariance		-.383	.142	-2.688*	-.391	.144	-2.706**
variance	intercept	7.775	.525	14.821***	11.437	.629	18.191**
	slope	.252	.058	4.306***	.127	.052	2.432*

4.3 부모의 우울수준 발달 궤적과 자녀의 언어 발달,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카이스퀘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chi^2(150)=1474.984, p=.000$ 다른 모형적합도 지수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RMSEA=.038, IFI=.960, CFI=.959, TLI=.937).

본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우울수준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우울수준 초기값은 아버지의 우울수준의 변화율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어머니 우울수준 초기값은 어머니

우울수준의 변화율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아버지 우울수준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우울수준과 어머니의 우울수준 초기값은 어머니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수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우울은 어머니 자신의 우울 문제 뿐 아니라 아버지 우울 문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우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아버지의 우울수준은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모의 우울수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자녀의 언어발달,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를 Fig. 2에 제시하였으며, 유의미한 경로계수만 표시되었다. 시각적 간명성을 위해 통제변수, 잠재변수의 측정변수, 오차항은 그림에서 제외하였다.

어머니 우울수준의 초기값은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에만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858$). 이는 어머니의 우울수준 초기값이 높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머니의 우울수준은 더 빨리 감소되고, 반대로 우울수준 초기값이 낮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우울수준이 느리게 감소된다고 해석된다. 한편 어머니의 우울수준 초기값과 자녀의 언어 및 심리사회적 발달과 학교적응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어머니의 우울수준 변화율은 표현어휘력과 교사적응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과 내재화($\beta=.612$) 및 외현화($\beta=.543$) 문제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으나, 수용어휘력($\beta=-.199$), 학교생활적응($\beta=-.378$), 학업적응($\beta=-.209$), 또래적응($\beta=-.412$)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우울수준의 변화율이 클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의 문제가 높게 나타나고, 수용어휘력,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및 또래적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이 우울수준의 감소폭이 클 경우 내재화 및 외현화의 문제수준이 높고, 수용어휘력,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응, 또래적응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자칫 어머니 우울수준이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키고 수용어휘력과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또래적응 수준을 높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수준의 초기값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 우울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우울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이에 비해 감소할 수 있는 폭이 크다. 이는 종단 연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26], 상대적으로 우울 감소폭이 작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아야하며, 우울이 내재화 및 외현화 수준을 낮추고, 수용어휘력과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또래적응 수준을 높인다고 해석될 수 없다.

아버지 우울수준의 초기값은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 ($\beta=.605$), 자녀의 내재화($\beta=.555$) 및 외현화($\beta=.213$) 문제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버지의 우울수준 초기값이 높을 경우 어머니 우울수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천천히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과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가 정적인 관계를 보여, 자칫 아버지의 우울문제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의 문제를 감소시킨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아버지 우울수준 초기값이 높을수록 자녀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가 높아짐을 보았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수준 초기값의 상관관계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우울수준도 높은 상태에서 우울 변화의 감소수준이 적게 나타나게 되므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수준도 높은 상태에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우울수준이 어머니의 우울 수준 변화를 통해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감소시킨다고 해석될 수 없다. 또한 4차년도 유아기 때 아버지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입학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의 행동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의 우울수준 변화율은 자녀의 언어발달,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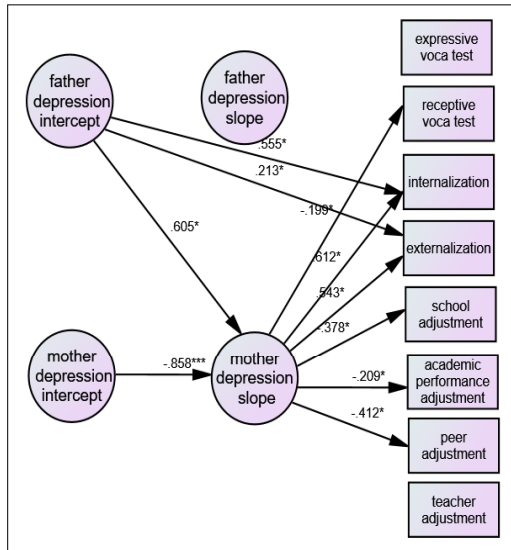


Fig. 2. Final model

잠재성장모형에서의 각 경로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14개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아버지 우울의 초기값은 교사적응을 제외한 수용어휘력, 내재화 및 외현화,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응, 또래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Z값이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4세 유아기때 아버지의 높은 우울수준은 어머니의 우울수준의 감소수준을 늦추고 이는 다시 자녀의 내재화와 외현화의 문제 수준을 높이고 수용어휘력,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또래 적응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우울수준의 초기값 역시 교사 적응의 경로를 제외하고 수용어휘력, 내재화 및 외현화,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응, 또래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Z값이 모두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4세 유아기 때 어머니의 높은 우울수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머니 우울수준을 빨리 감소하게 하고, 이는 다시 자녀의 내재화와 외현화의 문제 수준을 높이고 수용어휘력,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또래 적응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우울수준 초기값이 어머니의 우울수준 변화율을 통해 교사적응에 미치는 경로와 어머니 우울수준 초기값이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을 매개로하여 자녀의 교사적응에 미치는 경로만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우울수준 초기값이 높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 우울수준을 천천히 감소시켰으며, 어머니 우울수준의 감소폭이 낮을수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의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나고, 수용어휘력과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응, 또래 및 교사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수준 초기값이 높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 우울수준이 빨리 감소할수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의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수용어휘력,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응, 또래 및 교사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우울수준 초기값이 자녀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어머니 우울수준 초기값이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언어 발달,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은 각각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법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 우울수준

초기값이 아버지 우울수준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아버지 우울수준 초기값은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만을 매개로하여 자녀발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특히 아버지 우울이 어머니에게 전이(spillover)되어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4. Mediation effect

path	Z	p-value
father depression intercept → receptive voca test	1.981	.048
father depression intercept → internalization	2.143	.032
father depression intercept → externalization	2.065	.039
father depression intercept → school adjustment	2.066	.039
father depression intercept →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2.062	.038
father depression intercept → peer adjustment	1.960	.050
father depression intercept → teacher adjustment	1.194	.232
father depression intercept → receptive voca test	1.993	.046
mother depression intercept → internalization	8.363	.000
mother depression intercept → externalization	2.113	.035
mother depression intercept → school adjustment	2.079	.038
mother depression intercept → academic performance adjustment	2.075	.038
mother depression intercept → peer adjustment	1.970	.049
mother depression intercept → teacher adjustment	.853	.394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녀의 유아기에서 초등입학 시기에 이르는 동안 부모의 우울수준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자녀의 언어발달,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논의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 우울수준 각각은 자녀의 언어 발달,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부모 각각의 증상이 자녀의 증상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법모델(The joint additive model)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우울수준 초기값은 아버지 우울수준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어머니 우울수준 초기값은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아버지 우울수준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우울증상이 아버지에게 전이(spillover)되기 보다는 아버지 우울증상의 영향이 어머니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어머니에게서만 발견되는 배우자의 상대방 효과는 한국 부부관계의 문화적 특수성과 젠더 차이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족체계관점에서 주장하듯이 가족은 구조화된 총체적인 체계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대한 연구 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문제를 개별적으로 따로 접근하기 보다는 함께 한 모형 안에서 부모의 우울을 다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수준 초기값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발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모 둘 다의 정신건강에 대한 스크리닝과 개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주로 산후 우울로 어머니의 우울에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어머니 뿐 아니라 간과되어 왔던 아버지의 우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의 우울의 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학령 초기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우울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은 아버지와 어머니 우울수준 초기값과 자녀의 언어 및 심리사회발달과 학교적응 간에 매개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수준 초기값이 우울수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이 표현 어휘력을 제외하고 자녀의 수용어휘,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우울수준의 영향이 자녀의 언어 발달과 문제행동, 학교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 가사 역할을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많으므로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특히 어머니의 우울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후 우울부터 지속되거나 유아기에 우울증상이 있는 어머니에 대한 개입은 초기 개입도 중요하지만 우울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 우울수준 초기값은 자녀의 내재화와 외

현화 문제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우울수준 초기값은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을 매개로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는 어머니의 우울수준 초기값이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을 매개로 하는 자기효과의 간접효과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우울증상이 자녀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를 예측한다는 연구들[1,4,2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우울수준 변화율은 자녀의 언어 및 심리사회발달과 학교적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녀의 4세 유아기 때의 아버지의 높은 우울증상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높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 우울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은 학령 초 자녀의 내재화와 외현화의 행동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자녀의 심리사회 발달 중 내재화의 문제는 부모의 우울수준이 종단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로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우울수준 초기값이 어머니의 우울수준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내재화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로였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우울수준 초기값이 어머니의 우울수준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내재화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경로였다. 부모의 우울수준은 어머니 우울수준의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종단적으로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세 유아기 부모의 높은 우울수준 보다는 유아기 이후 학령기 초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의 변화율이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아버지의 우울과 자녀의 심리적 문제 간의 연관보다 어머니 우울과 자녀간의 심리적 문제의 연관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Connell & Goodman[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기에 우울이 있는 부모의 경우 추후 자녀가 우울, 불안 등의 높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아기에 부모의 우울수준에 관심을 갖고 개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수준 초기값은 어머니 우울수준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의 학교적응 수준 모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우울 문제는 단순히 자녀의 심리적 문제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친구, 교사, 학교생활, 학업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자녀의 학교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

생활 적응, 학업적응과 또래적응의 경우는 부모의 우울수준이 어머니의 우울수준 변화율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와 경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부모의 경우 자녀의 행동이나 정서에 덜 민감하고 덜 반응적이고 자녀의 요구와 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사회화 경험이 부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 중 특히 또래적응의 경로의 영향력이 다른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응, 교사관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이유라 예측된다.

여섯째, 부모의 우울수준은 자녀의 언어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우울증상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감소시키고 이는 자녀의 표현어휘력을 떨어뜨린다는 Paulson et al.[2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우울 수준은 자녀의 수용어휘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부모의 우울 문제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놀이 활동 등에 대한 활동 능력을 저하시켜 자녀의 수용어휘력을 감소시키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곱째, 부모의 우울수준은 어머니의 우울수준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학교적응 중 학교생활 적응, 학업수행 적응, 또래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학교생활이나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 부모의 우울 특히 어머니의 우울수준에 대한 스크리닝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우울이 자녀의 언어발달,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주로 많은 연구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우울문제를 따로 개별적으로 분리된 영향관계를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우울의 상호영향력을 종단적으로 한 모형 안에서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우울수준을 아버지 우울수준이 측정된 4차년도부터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녀의 유아기 이전 부모의 우울수준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울수준 발달궤적이 자녀의 발달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울수준의 측정시점이 5개 시점이어서 2차함수 변화 궤적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연구 모형의 간명성과 결과의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선형변화모형까지만 추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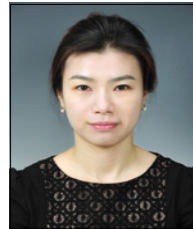
References

- [1] Connell, A.M., Goodman, S.H.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pathology in fathers versus mothers and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vol.128, no.5, pp.746-773. 2002.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28.5.746>
- [2] Vänskä, M., Punamäki, R-L., Lindblom, J., Flykt, M., Tolvanen, A., Unkila-Kallio, L., ... Tiitinen, A. "Parental Pre- and Postpartum Mental Health Predicts Child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vol.66, no.3, pp.497-511.2017
DOI: <https://doi.org/10.1111/fare.12260>
- [3] Paulson, J. F., Bazemore, S. D. "Prenatal and postpartum depression in fathers and its association with maternal depress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303, pp.1691-1699. 2010.
DOI: <https://doi.org/10.1001/jama.2010.605>.
- [4] Hanington, L., Heron, J., Stein, A., Ramchandani, P.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 outcomes—Is marital conflict the missing link?",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vol.38, no.4, pp. 520-29. 2012.
DOI:<https://doi.org/10.1111/j.1365-2214.2011.01270.x>
- [5] Fletcher, R. J., Feeman, E., Garfield, C., & Vimpani, G. "The effects of early paternal depression on children's development",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vol.195, no.11, pp.685-689. 2011.
DOI: <https://doi.org/10.5694/mja11.10192>
- [6] Pilowsky, D., Priya, J., Poh, E., Hernandez, M., Batten, L. A., Flament, M. F. "Psychopathology and functioning among children of treated depressed fathers and moth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16, no.4, pp.107-111. 2014.
DOI: <http://doi.org/10.1016/j.jad.2014.04.012>
- [7] Nath, S., Psychogiou, L., Kuyken, W., Ford, T., Ryan, E., Russell, G.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fathers and associated risk factors during the first seven years of their child's life: findings from the Millennium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vol.16, no.1, pp.2-13, 2016.
DOI: <https://doi.org/10.1186/s12889-016-3168-9>
- [8] Valdez, C.R., Shewakramani, V., Goldberg, S., Padilla, B. "Parenting Influences on Latin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the First Grade: Parental Depression and Parent Involvement at Home and School", *Child Psychiatry Hum Dev*. vol.44, no.5, pp.646-656. 2013.
DOI: <https://doi.org/10.1007/s10578-013-0358-x>
- [9] Sanger, C., Iles, J. E., Andrew, C. S., Ramchandani, P. G. "Associations between postnatal maternal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outcomes in adolescent offspring: a systematic review",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vol.18, no.2, pp.147-162. 2015.
DOI: <https://doi.org/10.1007/s00737-014-0463-2>
- [10] Goodman, S. H., Rouse, M. H., Connell, A. M., Broth, M. R., Hall, C. M., Heyward, D.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4(1),pp.1-27. 2011.
DOI: <https://doi.org/10.1007/s10567-010-0080-1>.
- [11] S. H. Kim. "The Longitudinal Effect of Young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Depression on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0, no.5, pp.421-446. 2016.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16.35.395>
- [12] H. Kim. "The comparison of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on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between poor families and non-poor families",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vol.24, no.1, pp.119-139, 2015.
DOI: <http://dx.doi.org/10.17643/KJCE.2016.25.2.16>
- [13] E. M. Yeon., H. Y., H.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s perceived depression, family functioning, parenting attitude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Focusing on actor and partner effec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6, no.2, pp.243-269.2016.
DOI: <http://dx.doi.org/10.18023/kiece.2016.36.2.011>
- [14] H. I. Chang, "Reciprocal Relations between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Depression: A Transactional Model",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28, no.2, pp.19-39, 2015.
- [15] Luo, Y., Bian, Y., Chen, X., Wang, L. "Effect of parental rejection on adolescents' depression: A moderated mediation effect", *Chine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 pp.268-272. 2015.
- [16] Ramchandani, P. G., Psychogiou, L. "Paternal psychiatric disorders and children's psychosocial development." *Lancet*. Vol. 374, pp.646-653. 2009.
DOI: [https://doi.org/10.1016/S0140-6736\(09\)60238-5](https://doi.org/10.1016/S0140-6736(09)60238-5)
- [17] J. Lee., H. Chung. "Mediating Effects of Adult-Child Relationship and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Couples :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1, no.1, pp.129-147. 2013.
DOI : <http://dx.doi.org/10.7466/JKhma.2013.31.1.129>
- [18] Mezulis, A. H., Hyde, J. S., Clark, R. "Father involvement moderates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during a child's infancy on child behavior problems in kindergart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18, no.4, pp.575-88. 2004.
DOI: <http://doi.org/10.1037/0893-3200.18.4.575>
- [19] Weinfield, N., Ingerski, L., Moreau, S.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s predictors of toddler adjustment.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vol.18,

- no.1, pp.39-47. 2009
DOI: <http://doi.org/10.1007/s10826-008-9205-2> .
- [20] Breznitz, Z., Sherman, T. "Speech patterning of natural discourse of well and depressed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58, no.2, pp.395-400. 1987.
DOI: <http://doi.org/10.2307/1130516> .
- [21] Huang, Keng-Yen, Abura, G., Theise, R., Nakigudde, J. "Parental depression and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nd children'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a sub-Saharan African setting",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vol.48, no.4, pp.517-27. 2017
DOI: <http://doi.org/10.1007/s10578-016-0679-7>
- [22] Paulson, J. F., Keefe, H. A., Leiferman, J. A. "Early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 languag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50, no.3, pp.254-62. 2009.
DOI: <http://doi.org/10.1111/j.1469-7610.2008.01973.x>
- [23] Shafer, Kevin, Fielding, Brandon, Wendt, Dougl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paternal and maternal depression on adolescent well-being", *Social Work Research*, vol.41, no.2, pp.85-96. 2017.
DOI: <https://doi.org/10.1093/swr/svx006>
- [24] O. Choi. "A longitudinal study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of mother, and early childhood socialit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6, no.3, pp.127-149. 2016.
DOI: <http://dx.doi.org/10.18023/kjeece.2016.36.3.006>
- [25] Hu, L., Bentler, P.M.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6, pp.1-55. 1999.
DOI: <http://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26] Bray, J. H., Adams, G. J., Getz, J. G., McQueen, A. "Individuation, peers, and adolescent alcohol use: A latent growth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71, no.3, pp.553-564. 2003.
DOI: <http://doi.org/10.1037/0022-006X.71.3.553>
- [27] Herbert, S. D., Harvey, E. A., Lugo-Candelas, C. I., Breaux, R. P. "Early fathering as a predictor of later psychosocial functioning among preschool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41, no.5, pp.691-703. 2013
DOI: <http://doi.org/10.1007/s10802-012-9706-8> .

권 태 연(Kwon Taeyeon)

[정회원]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석사)
- 2010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우울, 음주, 중단연구